

전남개발공사 실적 지지부진 어쩌나

대불산단 등 7개 사업지구 분양률 55.8%

거북배 등 6개 운영사업 매출도 기대이하

전남개발공사가 추진중인 주요 현안 사업의 분양·운영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지방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에 얹지도 떠맡길 사업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공익 사업이라는 명분만으로 추진해 재정 악화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진행중인 장성 행복마을 조성 사업과 남악신도시 조성사업, 장흥 해당산단, 대불산

단 조성사업 등 7개 개발사업지구의 평균 분양률이 55.8%에 머무르고 있다.

전남도의 지시로 추진했던 장성 행복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124필지(7만m²) 중 8필지(3900m²)만 분양돼 분양률이 5.5%에 불과했다. 200억원

에 이르는 비용을 투입해 지난 5월 대지 조성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8억5400만원(4.3%)만 거둬들인 데 그쳤다.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해당 일반산단) 조성 사업도 88필지(213만 6000m²) 중 3필지(95만4000m²)만 분

양돼 분양률(44.7%)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다. 바이오식품산업 단지의 경우 애초 다른 지역 산단과의 차별화 없이 조성 사업이 이뤄졌다가 뒤늦게 기준 명칭을 바꾸고 바이오·식품 산업 분야로 특화해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불산단 주거단지 조성 사업도 전체 분양 면적(48만6300m²) 중 84필지(11만1000m²)만 분양돼 22.8%의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개발공사는 추진중인 지역 산단 조성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을 조로부터 경영난으로 사업 좌초 우려가 제기된 강진·보성 일반산단 조성 사업까지 전남도로부터 떠맡아 진행하고 있다.

도청이 이전한 무안군 남악신도시 대상면적 178만4000m² 중 분

양된 면적은 131만5000m²로 분양률이 73.7%(46만8000m²)에 머물러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 역시 전체 분양면적 173만8000m² 중 122만2000m²가 분양돼 역시 30% 정도가 분양되지 못했고, 천안 염암파마와 울돌목 거북배 운영 등 6가지 운영사업도 목표

했던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울돌목 거북배 운영사업의 매출액은 올해 목표(2억5000만원)에 못 미치는 8000만원에 그쳤고 해남땅끝 호텔 운영사업도 목표(14억원)에 못 미치는 매출(6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개발사업 조성 공사가 끝나지 않아 분양실적이 낮은 곳도 있지만 분양·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 엑스포타운에 35개 공공·편의시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는 박람회를 준비하는 국내외 종사자들이 묵을 숙소인 엑스포타운에 35개 공공·편의시설을 갖추겠다고 20일 밝혔다.

엑스포타운에는 외국인 1800명, 내국인 4800명 등 총 6600명의 박람회 종사 인력이 박람회 준비부터 폐막 까지 3개월에서 최고 6개월 간 거주하게 된다.

엑스포조직위는 박람회 기간 종사 인력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임시진료소 1개소를 비롯해 커피전문점, 생맥주집, PC게임방, 피트니스, 세탁소 등 19개 편의시설, 4개의 종교시설, 비즈니스센터, 안전대책본부 등 11개 지원 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올해 김 농사 망쳤다”

해남·진도·완도 이상기온에 작황 쇠약

국내 최대 규모인 해남과 진도 등 서남부지역 김 작성이 이상기온으로 ‘쇠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염체가 무성하게 자라야 할 밭(그물)은 흰 그물(백발)이라고, 쓸모없는 파래만 잔뜩 불어 ‘김 농사를 망쳤다’는 한숨 소리가 가득하다.

진도와 완도 일부 지역 양식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어민들은 조기사금창감에 이어 일반김을 뜯어야 할 시기에 하얗게 변한 김발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겨 있다.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소 김동수 소장은 “지난 9월 채해보 바다에 설치한 김발이 평년보다 2℃ 이상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가뭄으로 영양 염류가 유입되지 않는 등 이상 기온으로 초기 김 작성이 심각한 상황”라고 말했다.

기상이변으로 지난달 끝난 조기 금창김 생산량은 예년보다 30%가량 줄었다. 생산량 급감에도 품질이 좋지 않아 예년 가격보다 20% 떨어진 100장 한 뮤음에 8000원에 거래됐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장희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20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5·18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삭제 철회' 요구하는 범시민사회단체' 연설회의를 마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5·18,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꼭 반영하라”

5·18 삭제철회 3차 연설회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5·18민주화운동 삭제 철회를 위한 광주지역 범시민사회단체 연설회의’는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제3차 연설회의에서 성명을 내고 “지역사회에 요구하는 집필기준에 반영된 점은 여전히 유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집필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설회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18을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각 출판사에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실과 국내외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등을 자세히 서술하도록 적극 협조 요청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설회의는 성명서 발표와 교과부 장관에게 약속이행 쟁족 공문을 발송하고 각 출판사와 집필진에 5·18을 충실히 서술해 주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5·18인정 교과서가 출간될 때까지 그 과정과 내용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연설회의는 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기준 마련과정에서 이번 같은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집필기준에 5·18을 분명하게 수록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집필기준 법령고시’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연설회의는 성명서 발표와 교과부 장관에게 약속이행 쟁족 공문을 발송하고 각 출판사와 집필진에 5·18을 충실히 서술해 주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5·18인정 교과서가 출간될 때까지 그 과정과 내용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나주·담양·무안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

전남도는 20일 정부에 나주·담양·무안을 개발촉진 지구 지정을 요청, 낙후지역 기본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개발촉진지구는 전국 하위 30% 이내의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남 전체면적의 20% 범위에서 지정되며 1지구당 400억~5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소득·법인세를 최장 4년간, 재산세를 5년간 각각 50% 감면하고 취득·등록 세는 면제된다.

전남에는 신안, 완도, 곡성, 구례, 장

흥, 진도 등 13개 군 1279㎢가 지정돼 1996년부터 2019년까지 141개 개발 사업에 2조3800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1조457억원을 투입해 지역 간 연계도로, 보성 녹차문화 공원 조성, 진도 회동관광지 조성 등 69건 사업을 완료했다.

전남도는 내년에도 국비 197억원을 지원받아 장성 죽령산 향유단지 기반시설 등 9개 계속사업과 고흥만수면 노을공원 기반시설 등 8개 신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1면 ‘광주시 사업’서 계속

982억원 규모 총인시설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 역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 이후 최근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4급 고무원이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접수가 달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종자기” 좋다고 많이 했는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업체가 다 떠밀쳐 나가 버렸다”면서 “이제 자연 재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음 달 중반 이후 씨가 달라붙는다 해도 내년 1월이 돼야

뉴스 브리핑

금품수수 혐의 신재민 前 차관 오늘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국철(49·구속)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檢, 윤석용 의원 옥매트 횡령 의혹 수사착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성희 부장검사)는 한나리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 후원물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 삼성동에 있

는 장수돌침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물품원인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의원은 장수돌침대로부터 후원받은 옥매트 900장 가운데 800장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1년도 광주신용보증재단 직원 채용공고

지역경제발전을 이끌어갈 능력 있고 협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I. 채용요건

구 분	내 용
일반인원	- 제단인사규정 제14조(채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격요건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우대사항	-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제단인사규정 제14조(채용제한)	금지자: 한정치자와 파악자로서 본래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에 종료되거나 또는 징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을 상실한 자 병역을 기록한 자 전직에서 정치범으로 명단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II. 채용 예정 인원 : 정규직 신입행원 0명

인턴기간(개월 이내)과 후 근무형태여부에 따라 정규직 채용형 예정
인턴(연수기간) 중 근무성적에 불평하거나, 업무능력이 저하되 부족하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III. 전형방법

- 1 차 : 서류전형 (서류심사, 논술심사)
 - 2 차 : 면접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3 차 : 선제검사 (최종 면접 합격자에 한함)
1.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역할
2. 유럽의 경제위기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3.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제출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취소 됨
※ 출입증명서(출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기획관련증명서, 주민등록 등·본·본 - 각 1부
※ 운전면허증 및 기타 자격증 시본(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여행증명, 경력사항, 봉사활동, 연수 등)

V.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1.11.24 ~ 2011.11.30 / 17:00까지 (7일)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제단 홈페이지 <http://www.kjsinbo.co.kr>), 우편접수 가능

VI. 기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동시 원서자에게 기재 오류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2012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새로운 혁신과 차지시대를 지역의 최고 리더들이 열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학습과 연대의 장을 제공합니다

1. 석사과정 (야간) : 80명

- 모집전공 : 공공행정전공, 차지행정전공
- 수강지역 : 광주반, 여수반
- 원서 접수 기간
 - 특별전형 : 2011. 11. 11(금) ~ 2011. 11. 23(수) 18: 00
 - 일반전형 : 2011. 11. 11(금) ~ 2011. 12. 5(월) 18: 00
- 전형 방법 및 일시
 - 특별전형(심층면접) : 2011. 11. 26(토) 14 : 00
 - 일반전형(필답고사 및 면접) : 2011. 12. 10(월) 14 : 00

2. 최고정책과정 모집 : 40명 내외

- 모집대상 :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무원, 경영인 등(홈페이지 참조)
- 원서 접수 기간 : 2011. 11. 16(수) ~ 2012. 2. 17(금) 18: 00

3. 문의사항